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2월 21일 목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21호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오늘 우리 인류에게 유례없는 위기가 닥치고 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오만한 대외정책을 한꺼번에 지님으로써 세계사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로 부상한 미국이 온 인류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부시 미국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새로운 전쟁 상대국을 지목하고, 그 나라를 향한 살인과 파괴를 명령하는 당사자이며, 전쟁의 불길을 우리 한반도에 옮기려는 장본인이다. 또한 그는 타국의 경제 주권을 빼앗아 미국식 자본주의(신자유주의)를 강요하여 노동자 농민 등 지구촌 민중을 굶주림과 절망에 빠뜨리는 주인공이다.

따라서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의 민족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며, 온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다음을 결의한다.

1. 한반도 전쟁 정책을 막아내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남북공동선언 실현에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가 있고, 겨레의 통일이 있으며, 세계평화의 초석이 있다. 그러나 부시 미국 대통령은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남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겨레의 평화적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 마음을 나누고 힘을 합치는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우리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내정간섭과 민족분열 책동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이며 6.15 남북 공동선언 실현의 길을 더욱 힘차게 내달릴 것이다.

2. 한미투자협정을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강요를 이겨내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투자협정의 강제를 포함하여 미국의 경제침략과 간섭,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저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3.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벗어나기 위해 투쟁한다

우리는 남북의 군사 대결을 부추기고,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 세금을 강탈하려는 미국의 엠디(MD)강요, 무기 강매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4.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찾기 위해 투쟁한다

미군기지는 흉악 범죄와 환경파괴의 온상이며 주권 침해의 상징이다. 우리는 온 국민에게 고통과 위험을 주는 전국의 미군기지를 모두 되찾는 날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를 사과 받고 소파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투쟁한다

6.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를 중지할 때까지 투쟁한다

부시 미국대통령이 북녘에 전쟁을 협박하고, 남녘에 내정간섭과 신자유주의 강요를 일삼는 것은 그가 오만한 까닭이다. 그러나, 미국에게 종속적 태도를 거듭하는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주권국의 당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02년 2월 20일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전농 부시방한 반대와 DJ정권 살농정책 규탄집회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전국농민회총연맹 800여명 ≪부시방한 반대와 DJ정권 살농정책 규탄≫ 집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의장 정현찬)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WTO 쌀 수입 반대와 부시 미대통령 방한 반대를 외치는 전국 농민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한 8백명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시방한 반대
1 부시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범국민대회 결의문
1 전농 부시방한 반대와 DJ정권 살농정책 규탄집회

노작
2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세기와 더불어
4 3장 1절 선진사상의 탐구 (2)

칭송
6 동포애
6 영원한 봄의 아들
6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론가

한국민족민주전선
7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자
7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 2월 19일

조국통일3대헌장
16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2)

조선중앙통신
8 주체 91, 2월 19일
9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신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자 (1)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의 끝없이 충실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의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

아리랑뉴스

11 부시 방한 이틀째 그림자 시위 계속돼
11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
12 도심을 뒤흔든 부시방한 규탄 시위
13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자존을 걸고 회담에 임해야
13 미, 부시대통령 한국방문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
13 미상공회의소 투쟁을 테러로 규정한 것은 인권테러행위
14 분석 –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본 국민들의 ≪반미감정≫
14 한미 정상회담 각계 반응 ≪햇볕정책 지지는 말뿐≫

운동강좌
15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4)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북조선노동당 도, 시, 군 위원회 위원장연석회의에서 한 보고 / 1947년 9월 6일

동지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은 민족의 일치단결을 보장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대한 정치적 사업입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적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그것을 강화하는 것을 새 조국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였으며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통일전선사업을 강력히 추진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작년 7월 북조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대표회의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함으로써 북조선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중앙으로부터 시, 군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사업하게 되였습니다.

오늘 북조선의 모든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 하에 굳게 결속되어 인민정권이 제시한 제반 시책과 결정을 지지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달성된 민주건설의 위대한 성과들은 우리 당의 민족통일전선정책이 정당하며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이 민전을 강화할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여 줍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옳게 진행되고 있다 하여 이에 만족하여서는 안됩니다. 아직 일부 지방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리 당의 민족통일전선정책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데로부터 우당들과의 사업에서 일련의 편향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당들과의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서는 지난 3월에 있은 당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중요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당의 당원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덮어놓고 배척하는가 하면 민주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놓고 우당들과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조를 취할 대신 불필요한 마찰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당의 일부 당원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있는 것을 보고도 묵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지장을 주는 유해로운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치정세와 민주건설의 방대한 과업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 조국이 해방된지 2년이 된 오늘까지도 우리 나라는 분열된 상태에 있으며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한 위업 앞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있으며 소미공동위원회 사업을 파탄시키려고 온갖 비열한 행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제는 남조선반동들을 부추겨 우리의 민주건설을 파괴하며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정당들 사이에 불신과 이간을 조성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처하여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어야 하며 그 기치 하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을 더욱 굳게 결속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의 역사적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책동을 분쇄하고 하루속히 전 조선에 통일적인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과업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당 일꾼들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 당의 민족통일전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당들의 구성에 대하여 잘 알고 그에 맞게 우당의 당원들과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우당들은 그 구성으로 보아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에서 우리 당과 얼마든지 통일전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자산계급의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소시민, 기업가, 상인, 종교인, 부농 기타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구성이 복잡하지만 민주당의 대다수 당원들은 조선을 예속하고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또다시 식민지로 되면 자기들이 일제 때와 같이 민족적인 차별과 멸시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로 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민주당과 통일전선을 강화하여야 하며 민주당의 당원들이 건국사업에 적극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물론 민주당에 들어있는 일부 기업가, 상인들은 국영경제가 장성 강화되면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심으로부터 민주건설에 참가하는데서 주저하거나 동요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는 인민정권이 실시한 민주개혁을 반대하고 우리의 민주건설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있는 교인들 중에도 내외반동들의 악선전과 우리 인민정권의 종교정책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앞으로 자기들이 인민들에게서 완전히 배척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절대다수의 민주당원들은 우리 인민정권의 민주주의적 시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튼튼히 결속하여 민주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청우당은 다수가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우당에 망라된 농민들은 토지개혁의 혜택에 의하여 땅의 주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민주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절실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청우당과도 손잡고 나가야 합니다.

청우당의 상층에는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고 자기들의 지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고 진보적 민주주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저애하면서 불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우당의 상층에 끼어있는 이런 자들 역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노동당원들은 청우당의 당원들과의 사업을 잘 하여 그들이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부강한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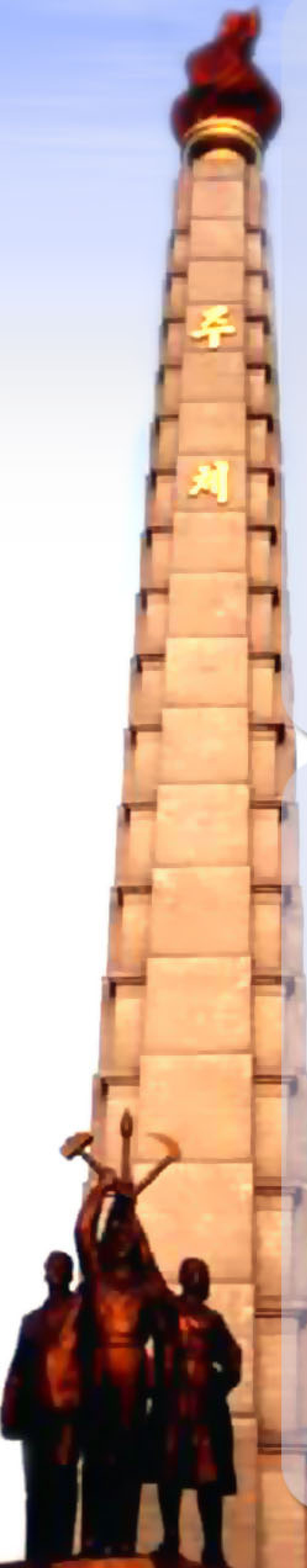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기독교단체성원들에 대하여서도 옳은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민전에 결속시켜야 합니다.

기독교단체의 상층에 있는 목사, 장로들 중에는 민족적 양심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미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그들에게 매수된 자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제는 기독교를 조선침략의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미제는 우리 나라 각지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기독교와 숭미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리하여 북조선만 보더라도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황해도 일대를 비롯하여 각지에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독교단체의 상층에 인민정권의 시책을 반대하는 자들이 일부 있으나 기독교단체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의 역사적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며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책동을 분쇄하고 하루속히 전 조선에 통일적인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방대한 과업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에 속하여 있는 대다수의 교인들은 인민정권의 시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지난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민주개혁의 혜택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므로 민전에 결속될 수 있으며 민주건설의 한 길로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종교인들의 구성상태, 그들의 처지와 사상동향을 잘 알고 종교인들의 건국열의를 높여주며 양심적인 목사나 장로들이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융성과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적극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하층종교인들을 각성시켜 그들 자신이 반동적인 장로와 목사들의 매국배족적인 행위를 적발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당과의 통일전선사업에서 하층통일전선과 상층통일전선을 옳게 결합시키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통일전선사업에서 상층통일전선과 하층통일전선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당들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함에 있어서 상층통일전선이나 하층통일전선의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조직을 통하여 각 정당, 사회단체 상층과의 통일전선을 이룩한 조건에서 그것을 공고히 하면서 하층통일전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의 각급 당 단체들과 당원들은 우당의 하층당원들과의 연계를 밀접히 하고 그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정권의 시책을 잘 해설해 주어야 합니다.

우당의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정권의 시책을 해설할 때에는 그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알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우당의 당원들에게 농업현물세제에 대하여 해설한다고 하면 북조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업현물세제는 일제 때의 공출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과 농업현물세제가 농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농촌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며 새 조국 건설을 촉진하는 우월한 시책이라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단체들은 당원들이 우리 당의 정책과 인민정권의 시책을 우당의 당원들에게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해설선전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게 할 뿐 아니라 우당의 당원들과 힘을 합쳐 그것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당 상층과의 사업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당 상층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당의 당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하층당원들이 노동당원들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당의 상층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당 상층의 일부 사람들이 민주건설을 시비하고 방해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발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일률적으로 법기관과 내무기관들에서 취급하게 하지 말고 단결의 견지에서 심중히 따져보아야 하며 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당 상층의 일부 사람들이 인민정권의 시책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그것을 시비하였다면 그들에게 인민정권의 제반 시책을 해설해 주어 그들 자신이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인민정권을 지지해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통일전선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우당 상층의 일부 불건전한 사람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무원칙하게 대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당의 상층 속에서 발로되는 비행에 대하여서는 그 당 자체 내에서 투쟁하여 극복하게 하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보아 민전 내에서도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의 정당한 시책을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민주건설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들에 대하여서는 응당 법에 따라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당의 하층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하면서 상층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당의 당원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더욱 굳게 결속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급 당 단체들에서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들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중단체로서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데 있어서나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당의 주위에 튼튼히 결속할 수 있으며 민족통일전선사업을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민청, 직맹, 농맹, 여맹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 주위에 굳게 단결시켜야 하며 사회단체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통일전선 내에서 우리 당의 독자성을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해방된 조국 땅에 인민이 주인으로 된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근로대중의 선봉부대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은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확한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민족통일전선 내에서 우리 당의 독자성을 견지하여야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결속하는 사업도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는 사업도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통일전선 내에서 우리 당의 독자성을 지키자면 우리 당 자체를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여야 당의 위력과 영향력을 높여 통일전선 내에서 독자성을 지키고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건국사업에서 나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되고 영향력이 높아지면 우당들이 우리 당을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 대열이 양적으로 급속히 장성된 현실적 요구에 맞게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여 당 조직을 질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 단체들은 당원들이 조직생활을 잘하고 당 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당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급 당 단체들은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정확히 인식시켜 그들 속에서 우당의 당원들에 대한 계급적 분석을 바로하지 못하거나 우당 단체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처리하지 못하여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결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당원들이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에 결속시키고 민전을 강화하는 사업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각급 당 단체들과 당 일꾼들이 우리 당의 통일전선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끝)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1. 선진사상의 탐구 (2)

어느날 나는 동무들과 함께 극장에 ≪창시≫구경을 갔다. 공연이 끝난 다음 ≪창시≫를 하던 녀배우가 우리한테로 찾아와 자기애인의 이름을 대면서 최 아무개라는 사람이 혹시 여기에 살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 녀배우가 조선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조선에서는 ≪창시≫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였다.

옥분이라는 그 녀배우는 경상도녀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어느날 뒤집에 있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너의 처가 아들을 낳으면 내 사위로 삼고 우리 처가 딸을 낳으면 네 며느리로 주마, 만약 다같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결의형제를 맺어주자고 약속하였다. 얼마후 한집에서는 아들이 태어나고 다른 한집에서는 딸이 태어났다. 두집에서는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켰다는 표적으로 명주수건 하나를 둘로 갈라 각각 반쪽씩 나누어가지였다.

그후 두집은 살길을 찾아 제가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아들을 본 집에서는 길림에 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커서 문광중학교에 다니였다. 그 집에서는 그래도 길림에 온 다음 집도 한채 얻고 자그마한 정미소도 하나 차려놓고 어렵지 않게 살았다. 그런데 녀자를 낳은 집에서는 단동까지 와서 려비가 떨어져 중국사람한테 어린 딸을 팔게 되었다. 옥분이는 매를 맞으며 ≪창시≫를 배워가지고 배우가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고향에서 살 때 결정해놓았다는 그 남자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새 고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조선사람들을 몰래 찾아다니며 그 남자의 행처를 탐문하군 하였다. 그날 옥분이란 그 녀배우는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남편되는 사람과 극적인 상봉을 하였다. 옥분이가 ≪창시≫를 그만두고 남편한테 떨어지겠다고 하자 그를 데리고 다니던 홍행단 주인녀자는 굉장한 돈을 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옥분이는 자기 몫으로 나오는 돈을 몇해동안 모아서 몸값을 물어주고 길림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때 이런 사연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피가 맺히고 분노가 생기였다. 학생들은 돈만 알고 인정을 모르는 홍행단 주인녀자를 ≪뱀같은 녀자≫라고 욕질하였

수십만의 인생이 한데 모여 생존경쟁으로 비지땀을 흘리며 돌아가는 대도시의 생활은 계급사회가 내뿜는 악취를 감추지못하였다.

뙤약볕이 내려쬐는 어느 여름날 동무들과 함께 북산에 갔다오던 나는 길가에서 인력거군이 부자와 다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인력거를 타고 온 부자가 인력거군한테 돈을 적게준 모양이였다. 인력거군이 부자에게 지금은 ≪삼민주의≫시대인데 ≪민생≫문제를 좀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몇푼만 더 달라고 빌었다. 부자는 돈을 더 줄 대신에 도리어 ≪삼민주의≫만 알고 ≪오권헌법≫은 모르는가고 하며 단장을 들어 인력거군을 때리었다.

분격한 우리 학생들은 부자놈에게 달려들어 돈을 더 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왜 인력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열두대문이 달린 으리으리한 집에서 호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혁명적 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급적처지와 리해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착취계급을 증오하고 자기 계급의 리해관계를 옹호하는 사상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었을 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나도 맑스-레닌주의고전을 비롯한 혁명적인 책들을 보고 계급적 처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사회현상을 보고 불평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증오하는 사상이 자라서 결국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맑스와 레닌의 저서들을 널리 탐독하고 거기에 깊이 심취될수록 나는 그 혁명학설을 청년학생들속에 한시바삐 보급해야 겠다는 충동을 가지게 되었다.

육문중학교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귄 동무는 권태석이라는 조선학생이였다. 초기에는 육문중학교에 조선학생이 모두 네명 있었는데 공산주의운동에 마음을 둔 것은 권태석이와 나뿐이였고 그 나머지는 정치운동에 무관심했다. 그저 돈만 알고 졸업한 다음 장사나 해먹을 궁리만 하였다. 나와 권태석은 지향도 비슷하고 사회를 보는 눈도 비슷해서 처음부터 서로 배짱이 맞았다. 중국학생들가운데서는 장신민이라는 청년이 나하고 가까왔다. 그 사람이 늘 나와 같이 다니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 사회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일제의 만주침략기도, 국민당의 반역적죄행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화제는 다양하였다. 그때까지만해도 길림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청년학생들속에서 동경의 대상으로만 되어있었다. 맑스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인물인지 좀 보자는 식으로 고전을 뒤적거리거나 맑스주의가 어떤것인지 모르면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나는 화전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였다. 비밀독서조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조직은 매우 빠르게 자라서 얼마후에는 문광중학교와 제1중학교, 제5중학교, 녀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길림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확대되었다.

독서조성원들의 대렬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독립운동자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방 한칸을 얻어가지고 류길학우회 성원들을 내세워 자체로 도서실을 운영하였다. 지금은 어디에 가나 도서관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큰 도서관도 궁전같이 세우지만 사실 그때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도서실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였다. 책도 사오고 서가도 매고 책걸상도 갖추어놓아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철도공사장에 가서 침목을 메나르거나 강가에서 자갈을 져나르는 것 같은 삯일을 하였다. 녀학생들도 정미소에 가서 쌀의 뉘를 골랐다. 이렇게 한푼두푼 힘들게 번 돈으로 책을 사들였다.

혁명적인 책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비밀서가까지 갖추어 도서실을 꾸려놓은 다음 간단하면서도 구수하게 책소개를 써서 시내의 여러곳에 붙여놓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의 도서실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끌기 위하여 도서실에 련애소설도 가져다놓았다.

청년들은 련애소설들을 읽는 멋에 도서실출입을 많이 하였다. 그런 식으로 책에 맛을 붙이게 해놓고는 사회과학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책들을 보면서 점차 각성되면 그때에는 비밀서고에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꺼내주군 하였다.

우리는 그때 청년학생들에게 ≪재생≫, ≪무정≫, ≪개척자≫와 같은 리광수의 소설책도 주었다. 리광수가 3.1운동전야에 일본도꾜에서 ≪2.8독립선언서≫도 작성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진보적인 작품도 많이 썼기때문에 청년들이 그의 소설을 즐겨읽었다. 그러나 후에는 변절하여 교양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혁명가의 안해≫와 같은 반동적인 작품까지 써냈다. 나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한 다음 부대를 인솔하고 남만으로 가다가 무송에 잠간 들린 기회에 그 소설을 읽어보았다. 소설 ≪혁명가의 안해≫는 한 공산주의자가 병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안해가 남편의 병치료를 해주러 다니는 의학전문학교 학생과 치정관계를 맺는 추잡한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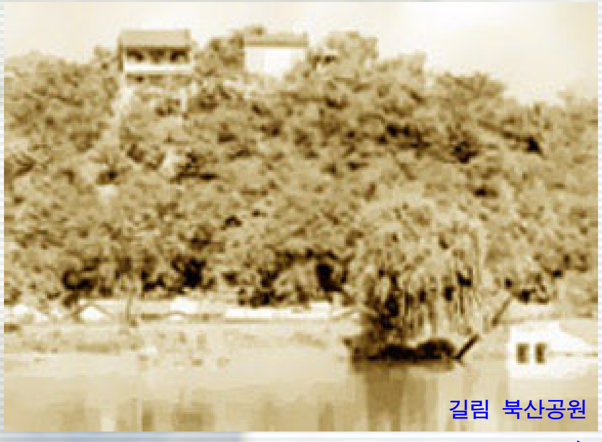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우리는 길림례배당이나 북산공원 같은데 모여 독서발표모임을 자주 하였다. 처음에는 더러 련애소설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듣는 학생들이 그따위 시시껄렁한 이야기는 집어치우라고 들이대군 하였다. 이렇게 한번 망신을 당하면 련애소설에 빠졌던 학생들도 스스로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청년학생들과 대중들에게 혁명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당수≫라는 방법도 리용하였다. 어느날 나는 목이 아파서 찜질을 하느라고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북산에 들렸더니 소경주위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소경이 넉두리 같은 것을 해가며 ≪삼국지≫의 한대목을 뜬금으로 엮어대고 있었다. 그는 제갈량이 꾀를 써서 적진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장면 같은데서는 북까지 치면서 흥을 돋구었다. 그러다가 재미나는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를 뚝 그치고는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때 중국사람들은 이런것을 ≪당수≫라고 하였는데 군중을 끄는데서는 좋은 방법이였다.

그후부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혁명사상을 보급하였다.

우리 동무들가운데 우스개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은 걸작이 한명 있었다. 우리한테서 과업을 받아가지고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하던 동무였는데 기도를 드리고 성경책을 외우는 것을 보면 목사들보다 나았다. 그 동무에게 ≪당수≫를 해보라고 과업을 주었더니 성경책을 외울 때보다 더 잘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실방이나 공원 같은데 가서 내용이 좋은 소설들을 뜬금으로 구수하게 엮어서 매번 호평을 받았다. 소경은 ≪당수≫를 하고 돈을 받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대신 재미나는 대목에 가서 끊고는 한바탕 선동연설을 한 다음 래일 어느 시간에 다음대목을 또 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날 사람들이 소설을 마저 들으려고 약속된 장소에 모이군 하였다.


길림 북산공원

그때 책을 통하여 사귄 사람들 중에 인상깊은 사람은 박소심이다. 길림의 번화한 거리에는 ≪신문서사≫라는 큰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한주일에도 몇차례씩 그 책방에 들리군 하였다. 그 책방에 박소심도 단골손심으로 다니었다. 그는 매번 사회과학서적을 팔아주는 매대앞에서 무슨 책이 들어왔는가를 알아보려고 한참씩 서성거리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매대앞에서 마주치는 때가 많았다. 몸은 강말랐으나 키가 후리후리하고 지성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도서관에 넣을 책을 한아름씩 사갈 때면 그는 자기 책이나 고르는 것처럼 흐뭇해하면서 어느 책은 어떻고 어느 책은 꼭 볼 필요가 있으니 사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언을 주군 하였다. 이렇게 책이 인연이 되어 나는 박소심과 친하게 되었다. 내가 동대탄에서 학교를 다닐때 그는 한동안 내가 거처하는 숙소에 와서 같이 생활하였다.

박소심은 서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었다. 몸이 약해서 공산주의운동 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신문과 잡지들에 짤막한 글들을 써내군 하였다. 그가 쓴 글이 아마 ≪해조신문≫이나 ≪조선지광≫같은데 나갔을 것이다. 운동에는 크게 관계하지 않고 있었지만 종파분자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멸하였다. 박소심이 대가 있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길림에 드나드는 운동자들은 제가끔씩 그를 쟁취해보려고 하였다.

박소심은 일본어로 번역된 ≪자본론≫을 밤을 새워가며 읽군했다. 돈이 떨어지면 입을 옷을 저당잡히면서라도 책을 사다보는 지독한 독서가였다. 그는 통속입문서 몇권을 읽고 맑스-레닌주의리론가로 으시대는 행세군이 아니라 맑스나 레닌의 주요 저작들을 거의 통달하다싶이한 사람이었다.

박소심은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주고 그것을 해설해준 잊지 못할 선생이었다. 맑스의 저작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자본론≫에도 난해한 대목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박소심이 우리에게 ≪자본론≫에 대한 해설강의를 해주었다. 고전을 파악하는데서는 역시 입문서나 안내자가 필요하였다. 박소심은 그 안내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다. 그는 참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은 내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의 명제에 대하여 그에게 물은적이 있다. 박소심은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이 력사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 각이한 측면으로 해석한 명제들을 한참이나 뜬금으로 쭈르르 외우는 것이였다. 리론이나 지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맑스주의대가라고 불리울만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런 박소심이한테도 모르는 것이 있고 막히는데가 있었다.

내가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서는 로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이 선차이고 민족적 해방이 후차라고 했지만 우리 나라는 우선 일제의 기반에서 벗어나야 로동자, 농민이 계급적으로도 해방될 수 있지 않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동무들속에서 많이 론의되고 있던 문제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는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과 민족해방의 호상관계에 대한 리론적해명이 적었다.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는 과학적해명을 기다리는 문제가 많았다. 박소심은 나의 질문에 어정쩡한 대답을 하였다.

나는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주국에서의 혁명과 식민지나라들에서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어있다고 하면서 종주국에서의 혁명승리가 가지는 의의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경우에는 일본로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독립될수 있단 말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단 말인가고 또 물었다.

박소심도 그 질문에는 대답이 막히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한참 나를 바라보았다. 박소심은 고전에 씌여있는 것처럼 로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민족적 해방에 앞세우고 종주국로동계급의 투쟁을 식민지나라에서의 민족해방투쟁보다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로선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내가 납득이 잘 안되어 머리를 기웃거리자 그는 그대로 안타까와서 자기는 맑스-레닌주의를 학술상으로만 연구해왔을 뿐이지 조선의 독립과 조선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혁명실천과 결부시켜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과 같이 실천과 유리되어 학문상으로만 공산주의학설을 연구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나와 우리 동무들이 맑스-레니주의선진사상을 연구하면서 느낀 제일 큰 고충은 우리도 로씨야사람들처럼 혁명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 나라를 해방해야겠는데 조선의 형편과 10월혁명이 일어나던 로씨야의 형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락후한 반봉건국가인 조선과 같은 식민지나라에서 무산혁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일제의 가혹한 탄압때문에 자기 조국을 떠나 중국땅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서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 혁명과 어떻게 련계를 취하며 조선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와 세계혁명앞에 지닌 국제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옳은 대답을 찾기까지는 오래 세월이 걸려야 했고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했다.

박소심은 맑스-레닌주의탐구의 나날에 나와 인간적으로 가까와졌고 우리의 혁명적 지향에 깊이 끌려들었다. 그는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에도 가입하였으며 우리와 함께 청소년들을 교양하고 계몽하는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책속에만 파묻혀있던 사람이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무대에 뛰어드니 그 정열이 대단하였다. 그후 우리는 폐병치료때문에 그를 카륜지방에 보냈다.

박소심은 쟈쟈툰에서 5리가량 떨어져있는 무개하기슭에 초막을 짓고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나는 카륜과 오가자 일대에서 활동할 때 시간을 내여 그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다. 나를 보자 박소심은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의 회포를 나누면서 많은 문제를 토론했다. 그때 박소심은 처음으로 나에게 안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안해가 죽었거나 리혼한줄로 알고 있었던 나는 놀랐다. 사진만 보고서도 그의 안해가 매우 아름답고 교양있는 신식녀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소심은 서울에 있는 그 안해가 얼마전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하였다. 왜 안해를 데려오지 않는가고 물었더니 자기처는 부자집 딸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그러면 부자집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는가고 물었다. 박소심은 한숨을 쉬면서 결혼을 한 후에 자기의 세계관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이 너무도 괴이하게 들려 정말 안해를 완전히 잊어버렸는가고 다시 물었다. 박소심은 지금까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왔는데 요즘 편지를 받고보니 자주 생각이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안해를 사랑한다면 데려와야 한다고 진심으로 권했다. 자기 안해하나 교양하지 못하면야 어떻게 낡은 세상을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세우겠는가, 안해가 곁에 있으면 병치료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박소심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숨을 쉬었다.

≪내 성주동무 말이니 듣겠소. 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기울었소.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후대들에게 넘겨줄 재산이나 정신적유산도 없었다. 자기는 맑스-레닌주의연구에 한생을 바쳐 로동계급의 리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을 꼭 쓰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살아 펄펄 뛰던 때는 진리를 몰라서 못썼고 진리를 깨닫고보니 이제는 건강이 허락치 않는다고 한탄하였다.

박소심의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안타까왔다. 박소심은 학문앞에 성실하고 꾸준하였으며 탐구력이 있었다. 책속에만 묻혀있지 않고 실천속에 좀더 일찍 뛰어들었다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치있는 리론도 찾았을 것이고 실천적인 업적도 쌓았을 것이다. 실천속에서 리론이 나오고 그 리론의 정당성도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다. 우리가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실천은 조선의 독립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이다. 아쉽게도 박소심은 이 진리를 깨닫기 바쁘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박소심은 그후 서울에 있는 안해를 데려다가 병구완을 받으면서 마지막순간까지 소론문과 단상들을 기록하다가 카륜에서 숨이 졌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리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지만 박소심과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고 가버린것은 분한 일이었다.

나는 길림에서 3년 남짓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일생에서 길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길림에서 나는 과학적 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를 리해하게 되었으며 그 학설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새 사조의 진수를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라잃은 민족의 아들로 태어난 슬픔과 분노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나를 일찌기 철들게 하였다. 나는 수난당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 의무감을 짊어놓았다.

길림시절에 나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드팀없는 것으로 굳어졌으며 그것이 내 한생의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되었다.

길림에서의 축적과 체험은 그후 나로 하여금 자주적인 혁명사상의 골격을 세울 수 있게 하였다.

학습은 혁명가가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적 공정이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이바지할 밑천을 마련하는데서 단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필수적 정신로동이다. 선진사상의 탐구과정을 통하여 길림시절에 터득한 교훈으로부터 나는 오늘도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끝)

일화

동포애

재일 동포들의 귀국재개의 막이 올라 첫 배가 조국에 도착한 날은 1971년 5월 16일이였다.

이날 오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른 일을 다 미루시고 귀국선을 책임지고 일본을 다녀온 일꾼을 만나주시였다.

문밖에까지 나오시어 기다리시던 그이께서는 그 일꾼이 나타나자 무척 반갑게 맞아주시며 우리 동포들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귀국재개가 이룩되어 첫 배가 떠나기에 앞서 일본반동들과 그놈들의 부추김을 받은 깡패들이 재일 동포들을 위협 공갈하는 등 온갖 책동을 다 한데 대하여 장군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다친 동포들이 한 명도 없이 모두 무사히 돌아왔다는 일꾼의 보고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기쁘신 어조로 오늘 저녁부터는 잠을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귀국선이 오는 동안 앓는 사람은 없었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꾼은 특별히 앓은 사람은 없었고 몇 사람이 배 멀미를 하였는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좀 심하게 멀미를 해서 내내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대수롭지 않은 어조로 말씀드리였다.

그의 말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이께서 크게 걱정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린 일꾼은 송구스러운 감이 들어 그 여성은 원래 몸이 약해서 남보다 더 심하게 뱃멀미를 한 것 같다고 변명조로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기 띤 음성으로 물론 뱃멀미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몸이 약한 여성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되도록 둬두었는가고 나무람하시면서 재일 동포들은 나라 없는 설음과 이국살이의 갖은 천대와 멸시 속에서 오랜 세월을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매에도 못 잊어하던 조국의 품에 안기는 순간까지 그처럼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동무들에게 동포애가 조금만 더 있다면 그쯤한 것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준절하게 말씀하시였다.

일꾼은 몸둘바를 몰라했다. 자기들의 덜퉁한 행동이 그이께 이처럼 큰 노여움이 되고 심려가 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여전히 흐리신 안색으로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뜨거운 심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 우리는 남들이 그럴 수 있겠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할 때에도 늘 인민들에게 불편한 것이 없겠는가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할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인민의 충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동무들에게 높은 요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해외에서 고생하다가 우리를 믿고 어머니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동포들을 뜨거운 사랑으로 맞이하고 보살펴주어야 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마디마디에 위대한 인간애와 동포애의 정이 흘러 넘치는 참으로 뜨거운 말씀이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겨 안으며 일꾼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날 바다 위에서 배 멀미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였던 자기들의 잘못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럴수록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간애의 세계에는 크고 작은 일 중한 일과 대수롭지 않은 일이 따로 없다는 것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였다.

송시

영원한 봄의 아들

식민지 동토인 한반도에 광복의 봄빛주시려
봄날처럼 환히 웃으십니까
빨찌산 대장 **김일성**주석님과
빨찌산 여장군 김정숙여사님
태양의 탄생일 맞으며
나란히 함께 찍으신 사진

봄이 없던 이 강산에 봄이 온다고
광복의 새봄 영원으로 이어져
승계의 봄, 2월의 봄 온다고
봄날의 미소지으십니까

백두의 위인들 태양에서 맞으신 그 봄이 있어
오늘의 2월의 봄이 있습니다
장군님 탄생하신 2월,
2월의 그 봄빛을 타고
백두산지붕아래 삼천리 가득
통일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아! **김정일**영수님
영원한 봄의 아들이시여

흠모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론가

오늘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정력적인 사상이론활동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심화 발전시켜 인류사상사의 보물고를 풍부화시키고 계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경모하며 신뢰하고 있다.

그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새로운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실 대마다 그것을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교과서로 받아안고 탐독하면서 **김정일**동지는 현시대의 자주위업 실현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의 거장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 있다.

이집트사회계 인사 나빌 아흐마드 무쓰타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심으로써 인류의 자주위업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건설과 자주독립국가건설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일 데 대한 문제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계신다.

주체사상연구 핀란드전국위원회 위원장 삐까 란딸라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문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커다란 흥분 속에 접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문헌은 현시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혀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대강이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사회제도를 염원하고 있는 때에 그이께서 이 역사적인 문헌을 발표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더욱 굳게 안겨주시였다. 인류가 그처럼 갈망하여 온 참다운 인간중심의 사회주의 사회에 관한 길이 환히 명시되어 있는 그이의 문헌은 역사와 더불어 영원할 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진정 사상이론의 거장이시며 세계혁명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 계시는 위대한 영도자이시다.

네팔노동자농민당 위원장 나라얀 만 비죽체는 현시기 세계정치의 중대한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이며 명확한 해답을 주고 계시는 분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이께서 집필하신 노작들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절박한 문제들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어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방도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기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노작은 연구하면 할수록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심오한 판단력으로 하여 독자들을 매혹키고 있다. 그이의 노작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 노선≫만 놓고 보아도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진보적 당들과 인민들이 현시기 조성된 국제정치무대에서 찾아야 할 교훈과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이론 실천적 문제들이 뚜렷이 밝혀져 있다.

페루 까하마르까국립종합대학 교수 에밀리오 까쵸가요쏘는 조선방문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론가이시라는 것을 더욱 깊이 느끼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 정력적인 활동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이론 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고 계신다. 참으로 그이께서 인류사상사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귀중한 재부로 만대에 길이 빛날 것이다.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자

노동자 농어민 시간 / 주체91 2월 18일

언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고 사회의 목탁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진실을 알리는 기관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하는 기관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럼 이번엔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더욱 활성화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조선일보가 이북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고 파시즘적 예술이라느니 뭐니하며 헐뜯고 나섰는데요. 이를 두고 지금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은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조선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서도 울리는 민족의 노래 ≪아리랑≫. 이 노래속에 담겨진 하많은 사연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수 있겠습니까.

오랜 옛날 이별의 눈물속에 태어난 ≪아리랑≫노래를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 피어린 망국노의 설움속에 부르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민족이죠. 살길 찾아 조국땅을 이별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 현해탄을 건너며 부르던 노래도 ≪아리랑≫이고 이역만리 타향에서 두고온 조국산천을 그리며 눈물속에 부르던 노래도 ≪아리랑≫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과 염원속에 그 ≪아리랑≫을 새롭게 부르고 있습니다.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한 국제경기들과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등 수많은 통일행사장들에는 어김없이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비껴있는 아리랑의 선율속에 희세의 걸작으로 이북에서 펼쳐질 ≪아리랑≫공연을 두고 ≪못보면 일생 후회가 될 것≫이라며 7천만 겨레가 흥분하고 격동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아리랑≫공연을 보고 헐뜯고 나선 것은 공연을 성의있게 준비하고 있는 이북의 청년학생들과 예술인들은 물론 이 공연관람을 열렬히 희망하고 있는 이 땅의 전국민과 해외동포들, 시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 노동형제들과 각계 민중은 조선일보가 민족앞에 저지른 죄행을 다시금 돌이켜보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일보로 말하면 친일친미사대행위만을 일삼으면서 우리 민족에게 해만 끼친 매국배족적인 어용나팔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대중이 생존권쟁취를 위한 정당한 투쟁에 나설때마다 집단이기주의,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쓰레기라는 딱지를 붙여가면서 악랄하게 헐뜯은 반노동자적 매문지입니다.

이런 반역집단이 6.15공동선언이행과 민주생존권쟁취를 위한 우리 노동대중과 각계 민중의 의로운 투쟁을 시비중상하다못해 이제는 아리랑공연까지 헐뜯고 나섰으니 어찌 용납할수 있겠습니까.

사회대중운동의 주도세력인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마땅히 맨앞장에 서서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할겁니다.

노동운동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각 지역별, 노조별, 현장조직별로 ≪아리랑≫공연이 가지는 의의를 널리 선전해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아리랑≫공연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반통일매문지인 조선일보의 죄행을 낱낱이 폭로단죄함으로써 노동대중과 각계 민중속에 반조선일보분위기를 더욱 조성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조선일보반대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꾸준하게 완강하게 벌여나가는 것입니다. 노동대중은 지난해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을 벌인 좋은 경험을 적극 살려 이 운동을 현실의 요구에 걸맞게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노농대중은 가정과 이웃, 친우들과 공단가에서 반노동자적이고 반통일적인 매문지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조선일보추방운동을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조선일보 입사거부, 원고기고거부, 독자안되기, 추방 등 다양한 투쟁을 강도높게 벌여 이 반통일 매문지의 숨통을 줴야할겁니다.

조선일보반대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또한 이 투쟁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부해서 벌여가는 것입니다. 이회창과 조선일보는 서로 공생하면서 다같이 6.15공동선언이행을 가로막고 미국에 붙어 분단에 기생하는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입니다. 따라서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은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 다같이 벌여나가야할 공동의 투쟁과제로 되는 것입니다.

1300만 노동형제들은 대중운동의 주력부대라는 자각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려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징벌해야 할겁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2월 19일

사진첩 ≪태양은 누리를 비춘다≫
대전시 사진애호가모임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활동하는 한 사진애호가모임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사진첩 ≪태양은 누리를 비춘다≫를 제작했습니다.

민족의 성산 백두산일출을 표지로 한 사진첩에는 서문에 ≪2월 명절을 맞으며 만고절세의 위인 **김정일**장군님을 경모하는 애국민중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라는 글발과 함께 첫 페이지에 태양의 미소를 지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그밑에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이라는 설명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사진첩에는 인류이상향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북 각지를 현지시찰하시며 군민들과 담소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진과 김대중대통령을 비롯해 박용길여사,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 등 이남의 통일사절들을 접견하시는 사진,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들과 상봉하시는 사진 등 총 60점이 설명문과 함께 편집되어 있습니다.

한민전 평양대표부 방문
아시아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후안 까레떼로 이바네스서기장은 18일 한민전 평양대표부를 방문했습니다.

박광기대표와 대표부 성원들이 손님들을 따뜻이 맞이하고 그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했습니다.

후안 까레떼로 이바네스서기장은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이남 민중들의 숭배심은 날로 더욱 높아가고 있다면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는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민전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해 자기들은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남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한민전이 앞으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부시방한반대, 전쟁반대시위
각계단체

종교, 여성, 문화예술, 시민, 민중단체인사 700여명은 18일 서울 명동 YMCA대강당에서 ≪700인 평화선언≫행사를 열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선언문을 낭독하고 평화기원 촛불 점화식을 가졌습니다. 종교계와 전국민중연대도 18일 서울 미대사관앞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주노동당소속 향토예비군들도 18일 미대사관앞에서 부시방한반대와 전쟁반대시위를 벌였고 6.25전쟁전후 피해학살자전국유족들은 이날 국회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부시가 이에 대해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18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입구에서 전쟁반대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특별미사를 갖고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 세인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대학교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대학교수 200여명은 18일 광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미상공회의소 점거투쟁
한총련

부시의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각계 민중의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18일 서울 시내에 있는 미상공회의소와 미대사관에 대한 점거투쟁을 벌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경에 대학생들은 방문객으로 가장하고 미상공회의소 안으로 들어가 유리창을 깨고 부시방한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창밖으로 내걸었습니다. 학생들은 경찰이 자기들의 앞길을 막아나섰으나 몸싸움을 벌이면서 완강히 대항했습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들의 입장을 공식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생들의 투쟁에 당황한 당국은 경찰을 출동시켜 이들을 연행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2월 19일

제6차 김정일화전시회 련일 성황리에 진행,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정일**화전시회장은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로 련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당, 무력기관, 정권기관, 근로단체,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일군들, 근로자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전시회장을 찾은 참관자수는 지금까지 5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80여개의 외국대표단들과 많은 해외동포들이 전시회장을 찾았다.

전국적으로 근 80개의 우수한 단체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1만 4, 300여상의 **김정일**화가 전시되여 2월의 명절을 보다 의의 깊게 장식하였다.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내각사무국, 국가계획위원회, 만수대창작사, 황해북도, 함경북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수많은 단위와 가정들에서는 많은 꽃들을 훌륭히 피워 이번 전시회에 내놓았다.

3대륙인민단결기구 총서기 ≪한민전≫평양대표부방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총서기 후안 까레떼로 이바네스가 18일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평양대표부를 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박광기대표는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남녘의 각계층 민중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고 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 미국대통령이 공화국을 함부로 걸고 들며 갖은 악담을 다 퍼부으면서 정세를 악화시키고 있는데 대하여 준렬히 규탄하고 미국은 무분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을 그만두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후안 까레떼로 이바네스총서기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숭배심은 날로 더욱 높아 가고 있다고 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는 이에 대해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한민전≫이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자기 기구는 높이 평가한다고 지적하였다.

백두산밀영과 삼지연군 상공에 신기한 자연현상

백두산밀영과 삼지연군 상공에 신기한 자연현상이 나타났다.

18일 아침 9시 26분부터 백두산밀영고향집 상공에 해무리가 비끼는 자연현상이 관측되였다.

해무리현상이 나타난 때로부터 13분이 지나 9시 39분부터 또 하나의 해무리가 나타나 10시 5분까지 칠색령롱한 빛을 뿌리였다.

한편 17일 저녁 9시 30분경부터 약 7분동안 삼지연군 상공에서 **김정일**화를 그림으로 그린듯한 모양의 희한한 구름이 나타나 사람들을 더없이 기쁘게 해주었다.

신기한 자연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백두산지구의 하늘도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끝 없는 감격과 환희를 아름다운 꽃송이로 장식한듯 싶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가 부쉬항의서명운동전개를 호소

재미동포전국련합회는 미국대통령이 ≪년두교서≫라는데서 그 무슨 ≪악의 축≫이니 뭐니 하고 우리 공화국을 헐뜯으며 악담을 늘어 놓은것과 관련하여 부쉬에게 보내는 항의문건을 작성하고 각 지역의 모든 동포들이 이에 서명하는 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였다.

문건은 미국이 조미관계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것과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요구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로작발표 28돐을 기념
로동신문

≪로동신문≫ 19일부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강령적로작을 발표하신 28돐이 되는 날에 즈음하여 기념론설을 실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주체사상이야말로 조선혁명과 자주시대의 유일무이한 지도사상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시였다.

신문은 주체의 기치높이 새 세기의 혁명적진군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 나가시며 독창적인 선군사상, 선군로선을 제시하시고 빛나게 구현해 나가고 계시는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조선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으로 틀어 쥐고 그를 시대를 향도하는 불멸의 기치로 발전풍부화해 오신 력사이다.

주체사상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승리의 기치로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는 최근년간의 어려운 시련의 시기들에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선군사상, 선군정치방식은 다름아닌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식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갈수 있는 위력한 정치방식이다.

총대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지켜 지고 개척되며 그 미래가 담보된다는것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 진 혁명의 원리이며 총대중시사상이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오늘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을 승리에로 추동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 있다.

부쉬행각 반대투쟁 전개

서울에서의 ≪제1라지오≫ 등의 보도들에 의하면 18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부쉬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서울시내에 있는 미상공회의소와 미국대사관에 대한 점거투쟁을 벌렸다.

이날 오후 30여명의 대학생들은 상공회의소안으로 들어 가 ≪부쉬방한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창밖으로 내걸었다.

그들은 곧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들의 립장을 공식 천명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단체소속 다른 한조의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부쉬방한 반대≫의 구호를 웨치며 미국대사관을 향하여 진격하면서 거리에 인쇄물을 뿌렸으며 미국성조기를 불 태우려고 하였다.

한편 ≪광주, 전남통일련대≫와 시민사회단체련대회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이날 공동으로 광주공원에서 ≪부쉬방한 규탄대회≫를 가지고 광주 ≪기독교청년회관≫앞까지 행진하였다.

또한 ≪광주, 전남민중련대≫ 소속 13개 단체 대표들은 광주역광장에서 천막롱성에 들어 갔으며 려수사랑청년회소속 회원들은 려수 교동의 한 거리에서 규탄대회를 가지였다.

리비아에서 로작 출판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리비아 따니트출판사에서 3일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단행본은 머리글에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광복하신 후 외부세력의 간섭으로 하여 조선의 통일문제가 조래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민족뿐아니라 세계 여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과 발기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통일방안은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정일동지께서 정립하여 주신 조선통일의 3대헌장은 통일을 갈망하는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에 맞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조선통일의 방도들을 집대성한것이다.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조선
레바논에서 출판

레바논근로자련맹 총서기 자헤르 알 하티브가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서술한 도서 ≪위인을 모시여 빛나는 조선≫이 레바논에서 출판되였다.

필자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도전과 봉쇄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를 모시였기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강성대국건설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정치가들은 조선의 모범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도서는 ≪령도자와 민족≫, ≪어머니당이라고 부르는 조선로동당≫, ≪강성대국으로 도약하다≫, ≪조선통일의 향도성≫ 등 제목으로 구성되여 있다.

필자는 도서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을 강성대국건설에로 힘 있게 불러 일으키신 혁명업적을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감명 깊게 서술하였다.

유럽지역 정당들의 토론회
벨지끄에서 진행

제국주의자들의 ≪세계화≫를 반대하는 투쟁과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에 관한 유럽지역 정당들의 토론회가 8일과 9일 브류쎌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유럽지역 25개 나라의 40여개 정당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프랑스주재 우리 나라 총대표부 총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토론회에 초대되였다.

벨지끄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개막연설에서 조선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것은 유럽뿐아니라 전 세계진보적정당들앞에 나는 가장 중요한 공동의 과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도이췰란드공산당, 그리스공산당, 아일랜드공산당(맑스-레닌주의), 영국사회주의레이버당,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로므니아사회주의로동당, 벌가리아공산당,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스웨리예맑스-레닌주의공산당(혁명가), 슬로벤스꼬공산당, 유고슬라비아로동당을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대표들이 연설과 토론들을 하였다.

연설자들과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선군정치는 세계사회주의위업수행의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하면서 선군정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지지성원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또한 브류쎌선언과 결의, 미국대통령 부쉬에게 보내는 항의편지가 채택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신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더 큰 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전진하자 (1)

로동신문 사설 주체91, 2월 19일

우리 인민과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열렬한 흠모와 축원속에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뜻 깊게 기념하였다.

올해의 2월명절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끝 없이 빛내이려는 전당, 전군, 전민의 드팀 없는 신념과 의지가 힘 있게 과시된 대정치축전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가 최상의 높이에서 떨쳐 지는 시기에 맞이한 올해의 2월명절은 우리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장군님에 대한 숭배심이 뜨겁게 넘쳐나게 하였다.

우리는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뜻 깊은 올해를 빛내이기 위한 총 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합니다.≫

령도자에 대한 흠모와 숭배는 혁명하는 인민의 고결한 풍모이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전례없이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칭송하는 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올해를 가장 뜻 깊은 영광의 해로 빛내이려는 전체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강성대국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 났다.

2월의 명절을 인류공동의 최대의 경사로 기념하려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열망은 참으로 뜨거웠다. 5대륙의 수많은 지역과 나라들에서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기념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을 축하하여 보내온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와 지성어린 선물들에는 장군님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 없는 신뢰가 뜨겁게 어려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산밀영지구와 평양에서 수많은 외국의 벗들이 참가하는 ≪21세기의 태양맞이모임≫이 진행된것은 새 세기를 향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절대적권위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온 세상을 들끓게 한 2월의 혁명적분위기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특출한 정치실력과 비범한 령도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적풍모가 펼쳐 놓은 자랑찬 화폭으로 된다.

우리 인민이 2월의 명절을 경축한 나날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가슴 뜨겁게 새기게 한 의의 깊은 나날이였다.

령도자의 위대성은 력사와 업적의 위대성이다. 혁명을 이끄는 령도자의 위대한 력사와 업적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가며 인민들의 심장속에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라는 숭고한 사상감정이 뿌리 내리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된다.

2월의 명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처럼 위대한 력사와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시는 절세의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세계가 공인하는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60성상의 로정은 혁명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귀감을 창조하여 오신 숭고한 도덕의리의 력사이며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령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에로 이끌어 오신 실력가형의 위인의 력사이며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의 서사시로 수 놓아 진 위대한 인민적령도자의 력사이다.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는 주체사상과 불패의 일심단결, 백전백승의 혁명적당과 군대,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비롯하여 우리의 모든 귀중한 재부와 전취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업적과 하나로 잇닿아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구원하시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 놓으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혁명력사의 장구성과 이룩한 업적의 위대성에 있어서 그 어느 위인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와 업적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중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한 인민이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 따라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걸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것이다. 2월의 명절을 계기로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천만군민이 한마음한뜻이 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힘 있게 과시되였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고 우리 인민이 발휘하는 영웅성의 근본원천이다. 령도자에 대한 다함 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숭배심에 기초하고 있기에 우리의 일심단결은 무한대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우리 인민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인 불변의 일심일체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따라 혁명해 오는 오랜 력사적로정에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여 그 품에 심장을 맡기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고난의 행군≫의 나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령도자로 모신 행운에 대하여 페부로 뜨겁게 절감하게 한 나날이였다. 간고한 결사의 행군의 나날에 더욱 강렬해 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활화산처럼 분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나깨나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2월의 명절을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하여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높은 정치적열성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충성의 편지들과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된 정치행사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령숭배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긍지높이 보여 주었다. 민족최대의 경사의 날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전체 인민의 뜨거운 충성의 열의속에 라남의 봉화가 더 거세차게 타번지고 도처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하늘땅 끝까지 따르고 받들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세기가 바뀐다고 하여 드팀이 있을수 없다. 이 세상에 지구를 깨뜨릴 힘은 있어도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없다.

2월의 명절을 경축하는 나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의 령도 따라 이 땅우에 위대한 **김정일**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은 의의 깊은 나날이였다.

이 땅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려는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한평생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만 1,326개 단위를 찾으시여 5,781일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며 105만 8,260여리의 멀고 험한 초소길, 공장길, 농촌길을 걸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뜻 깊은 올해 2월의 나날에도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강성대국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를 더욱 심장깊이 새기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자 군대의 의지이고 인민의 지향이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가 전면적으로 꽃 핀 **김정일**강성대국으로 건설하려는것이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다지는 철석의 맹세이다.

령도자의 구상과 의도가 위대하고 령도자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군대와 인민의 의지가 굳건하기에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고히 담보되여 있다.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앙양된 정치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나가는것은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혁명적풍모이다.

우리는 2월의 명절을 뜻 깊게 기념한 크나큰 긍지와 충천한 기세로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과 조선인민군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총 돌격전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 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수령결사옹위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나가야 한다. (내일 계속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의 끝없이 충실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의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강좌 제281회
학사 김희남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2월 18일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는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2월 16일을 민족최대의, 인류공동의 혁명적 명절로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절에 즈음해서 북과 남, 해외의 7천만 우리 겨레와 진보적 인류는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해서, 세계의 자주위업실현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흠모심과 감사의 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찍이 젊으신 시절부터 어버이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실현에서 참으로 특이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당과 혁명의 노숙하고 세련된 최고 영도자이십니다. 특히 특출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활동으로 20세기를 빛나게 결속하시고 최근에 와서 더욱 횡포하고 노골화된 제국주의반동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연전연승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통해 우리 인민과 전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이시야 말로 **김일성**민족의 운명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시며 21세기를 이끄실 탁월한 수령이시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고 그이께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 시간에는 이번 학년도 이 과목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의 끝없이 충실하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의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인류이상실현의 길을 밝혀주는 인간중심의 혁명학설로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격찬하고 있는바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목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시대에 진보적 인민들이 반드시 높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의 지침이며 인류해방의 불멸의 기치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끝없이 충실하는 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 인민들의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우리시대 인민들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여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투쟁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혁명투쟁에서 어떤 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가 하는 것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은 심각한 계급투쟁과 거창한 사회적 변혁,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동반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인민대중의 자주 위업은 그 직접적 담당자인 인민대중이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관철해 나갈때만이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인류역사를 고찰해 볼 때 과학적인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 인민은 필승불패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인민은 무력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 나가자면 인민대중이 올바른 지도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인민대중이 확고한 신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도사상은 어떤 사상으로 되야 하겠습니까.

인민대중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 수 있는 사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시대의 지향과 염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그런 위대한 사상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다름아닌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밝히신 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이 갖추어야 할 사상 이론적 내용과 체계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완전히 새롭고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혁명의 본질로,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해서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입니다. 바로 그런 것으로 해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면 반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을 높이 들고 그 요구대로만 살며 투쟁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끝없이 충실하는 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숭고하고도 영예로운 임무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커다란 생활력과 진리성이 이미 실천을 통해 검증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혁명실천을 통해서 그 불패의 생활력과 진리성이 검증된 과학적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다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 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전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서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건설했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제도를 변혁하기 위한 길을 밝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안받침한 노동계급의 선행한 혁명사상입니다. 물론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이끌어 나가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주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폭이 넓어지고 그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맑스–레닌주의로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수없이 제기되였습니다. 이러한 혁명발전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는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은 맑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대하면서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종당에는 사회주의집권당이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파국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해서 인민대중 중심의 독특한 사회주의를 일떠 세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길에 들어선 첫날부터 제국주의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 속에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야 했고 특히, 90년대 후반기에는 적들이 사회주의 조선의 붕괴를 시간표마저 짜놓을 정도로 시련과 난관이 엄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찬탄하는 것처럼 남들 같으면 열번도 더 무너졌을 것이지만 우리 나라는 불패의 사회주의 성세로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그 국제적 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오르는, 보통상식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역사의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주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있고 희세의 영웅이신 장군님의 걸출한 영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기에 오늘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은 인민대중의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오직 사회주의 길, 조선식 사회주의가 인류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은 사상이고 또, 그 진리성과 불패성이 검증된 불멸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을 영원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끝임없이 충실하자면 어떻게 해야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취급한 강의들에서 부문별로 많이 강조되였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나간다는 것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문제를 대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해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해서 확고한 신념으로, 영원한 사상적 기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만이 살길이고 자주에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 대를 확고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에 끝없이 충실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 혁명적 인민들의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로 되며 이것은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민족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상적 기초로 해서 하나로 굳게 뭉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며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시 방한 이틀째 그림자 시위 계속돼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 둘째날, 서울시내 곳곳에는 부시방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루종일 계속됐다.

먼저 20일 오전 9시 옥인동 범혜사 앞에서는 그림자 투쟁의 둘째날 일정으로 ≪부시방한 반대 청와대 긴급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가 열렸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서한을 청와대에 접수시키려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집회장소에 고착되어 강한 항의와 함께 규탄집회를 12시 20분경 까지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무교동 미 보잉사 앞에서는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주최로 ≪F-15 전투기 강매하려는 부시방한 반대≫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오후 3시 50분부터는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가 서울 종묘공원에서 노동자,농민,청년,학생,시민사회단체 회원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편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학생 1000여명은 집회가 마무리되기 전 대열을 빠져나와 4호선 명동역에 내려 명동성당까지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정리집회가 끝난 이 후에도 종로, 명동등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며 부시방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렬 기자
통일뉴스 2002/02/20

부시방한 규탄 국민대회

≪전쟁 앞에서는 노동자, 농민, 시민 따로 없다≫ 신자유주의, WTO, 전쟁 반대 목소리 폭발

20일 부시방한 공식일정이 있는 날의 도심 곳곳에서는 ≪부시방한 반대≫를 외치는 시위와 집회가 잇따랐다.

시민단체, 노동계, 농민, 학생 등 각계 운동진영의 6백여 단체들은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약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부시방한 반대≫의 깃발을 휘날렸다.

이날의 집회는 운동부문을 막론하고 최초이자 최대의 대규모 행사로 ≪전쟁반대와 평화실현≫에 대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의 의지와 염원이 불붙었음을 보여주었다.

전국민중연대, 전농, 전교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전국노점상연합회, ≪한총련≫ 등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집회로 종묘공원은 발 디딜 틈없이 빼곡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전쟁 앞에서는 노동자, 시민, 농민이 따로 없다≫는 말로 평화에 대한 결의를 확인했다.

이들에게 미국과 부시는 전쟁광 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는 신자유주의를, 농민에게는 WTO 강요를, 환경에는 독극물 방류와 생명 말살≫을 강요하는 주범이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평화의 해라고 선포해도 평화가 지켜지기 어려운데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라고 선포하니 도대체 인류의 미래를 어디로 갈 것인가≫라며 한탄한 뒤 ≪미국은 히로시마 원폭투하, 월남전 고엽제 휴우증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지만 또다시 한반도를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위험한 때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개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많은 국가 기간산업이 미국의 손에 넘어가고, 주식시장 또한 해외자본에 잠식되었지만 정부는 F-15기라는 미국에서 폐기처분된 무기를 사들이는데 13조원을 들이고 있다. 이 규모는 노동자 임금인상분의 5%에 해당한다≫ 노동자를 외면하고 무기수입에만 급급한 정부에 분노했다.

여성운동연합 정현백 대표가 낭독한 ≪부시 방한 반대 전국 600여 사회단체≫ 결의문에는 △전쟁 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중지하라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반환하라 △양민학살에서 한강 독극물 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6.15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 방해하지 말라 △김대중 정부는 아프카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하여 민주노동당 소속 송모씨,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현숙 대표 등이 병원으로 호송되기도 했다.

△오후 1:00~1:30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반미여성회 어린이 20여명과 함께 사전 집회

△오후 1:30~2:50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전국농민회총연맹 800여명 ≪부시방한 반대와 DJ정권 살농정책 규탄≫ 집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은(의장 정현찬)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WTO 쌀 수입 반대와 부시 미대통령 방한 반대를 외치는 전국 농민 대표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한 8백명여명의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의 정현찬 의장은 개회사에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을 맞고 있는 ≪한국≫은 마치 계엄령이라도 선포된 듯 부시 미대통령 방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연행 · 구속하고 있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미 집회를 탄압하는 현 정부를 규탄했다.

전농은 규탄사에서 ≪김대통령은 자신 대통령 당선 공로자인 농민들 편에 서서 개방 농정 철폐 통일 농업에 초석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부시에 굴복한채 이 나라 농업을 망친 대통령으로 남을것이냐≫는 물음으로 그들의 요구를 대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농민대회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농 정광훈 전 의장과 배형택 대외협력국장이 구속된 것에 분노를 표시하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 민노총 · 전농 · 전국연합 · ≪한총련≫ 대학생등 시민사회단체 부시방한규탄 국민대회개최 5천여명 참석

홍미진 문선영 김영재 기자
시민의 신문 2002/02/20

도심을 뒤흔든 부시방한 규탄 시위

전학협, 보잉사 고공농성

≪NO F-15≫부시 방문 이틀째인 20일 차세대 무기로 거론되고 있는 F-15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7분. 여의도역 4번 출구 앞 보잉사 대형간판 위에서 전국학생회협의회 소속 학생 5명이 ≪부시방한 반대,무기도입 저지,평화 군축실현≫을 외치며 15분 동안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F-15 무기 도입 반대≫, ≪전쟁광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NO WAR, NO F-15 평화군축 실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3장을 준비해 보잉사 간판에 10분간 걸어두고 유인물을 뿌렸다.

그러나 오전 9시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플래카드는 완전히 철거되고 보잉간판에 매달려 있던 학생 5명은 오전 9시 15분쯤 전원 연행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계자는 ≪연행한 학생들은 조사 후에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20일 오후12시 무교동 한미은행 본점 보잉사 앞에서 ≪F-15강매 부시 방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사회당은 명동성당에서 ≪F-15기 구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석회의, 부시방한 반대집회

김대중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20일 오전 11시경, 청와대에 미국과의 자주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던 시민단체들을 경찰이 저지해 심한 충돌이 일어났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부시방한 반대 제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 회원 80명은 오늘(20일) 오전 9시 종로구 옥인동 범혜사 앞길에서 ≪부시방한 반대 집회≫를 가졌다.

집회를 마친 뒤 10시30분 경 문정현 신부, 홍근수 목사, 양연수 자통협 고문 등 3명이 대표로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자 경찰이 이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전투경찰 3개 중대는 집회 참석자들을 도로 한편으로 밀어붙여 완전히 에워싸고 피켓과 플래카드를 빼앗았다. 문정현 신부는 참석자들과 별도로 20여명의 경찰이 둥글게 둘러싸 고립시키자 길에 누워버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통령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는데 경찰이 무슨 법적 근거로 이를 막는 것이냐≫며 ≪오늘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허가 받은 합법집회를 경찰이 방해하면서 시민들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청와대에는 민원실이 없으니 고충처리위원회로 가라≫며 ≪오늘 청와대는 개미새끼 한 마리 접근 못한다. 경찰인 우리도 못 간다≫고 답했다.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겠다는 참석자들을 계속 에워싸고 12시까지 이들의 움직임을 막았다.

문정현 신부가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하자, 20여명의 건장한 전투경찰이 문 신부를 둘러싸았다.

F-15 전투기 강매하려는 부시방한 반대

오후 1시 무교동 미 보잉사 앞에서는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주최로 ≪F-15 전투기 강매하려는 부시방한 반대≫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부시 미대통령이 F-15기 100대 구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미국의 F-15기 강매는 우리나라의 대미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명동성당 집회 마친 학생들, 거리 곳곳에서 격렬 시위

저녁 7시 40분 명동성당에서 정리집회를 끝낸 학생들 중 1000여 명이 종로 2가 탑골사거리 차도로 뛰쳐나갔다. 이들은 서울YMCA 건물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강제진압을 시도하자 종로 5가 방향으로 뛰어갔다.

경찰이 인도로 뛰어들어간 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경찰과 거칠게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마친 500여명의 학생들은 명동역쪽의 밀리오레 건물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중 100여 명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쥐어져 있다.

이들은 명동 전철역 근방의 퇴계로 3가 방향으로 3개 차선을 점거한 채 한목소리로 ≪부시방한 반대≫ ≪전쟁반대≫를 외치다가 동국대로 집결하고 있다.

논평

김대중 정부는 민족의 자존을 걸고 회담에 임해야

민주노동당 대변인 이상현

≪방한 반대≫를 외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시 미국대통령이 19일 한국땅을 방문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한-미 동맹 관계와 대 테러 협력 △한반도 정세 △경제통상 문제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시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지칭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인 이북을 놓고 한미간에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것이니 만큼 한국 국민과 온 세계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크게 주시하고 있다.

이제 이처럼 중차대한 회담에서 관건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주체적이고 당당하게 회담에 임하느냐이다.

이미 부시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북에 대한 무력 공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다시 이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고, 또 이번 회담에서 한국 정부에게 낡은 F15 전투기를 강매할 것이 뻔한데 그동안 대미관계에서 대단히 굴종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김대중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그러나 이미 한국정부는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18일 갑작스레 지난해 3월 교토의정서 협약을 탈퇴하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미국이 지난 14일 내놓은 기만적인 수정안에 대해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이라는 환영성명을 내고, 또 한국이 ≪미국의 대 테러전쟁 지지도가 제일 낮은 국가≫라고 보도된 데 대해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미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 정부가 △한-미 동맹 강화 △미국의 반 테러 전쟁 전폭 지지 △이북 대량살상무기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져 우려했던대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고 햇볕정책에 대한 수사적 지지만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이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철회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무기강매 중지를 외치는 온 국민의 분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최소한의 민족적 자존심이라도 있다면 부시대통령을 상대로 당당하게 △전제조건 없는 즉각적인 북-미 대화 재개 △대 테러 전쟁 중지 △F15 강매 거부에 대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은 힘을 바탕으로 한 맹관계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주성과 남-북의 주체적인 노력으로 이룩되는 것이다.

부시대통령 한국방문에 대한 입장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2월 19일 오늘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는다.

부시대통령은 한국 땅을 밟기 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 대북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월 29일 연두교서에서 부시대통령, 북을 <악의 축>,<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우리를 위협하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위험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2월 14일 아시아 3개국 순방배경 설명 기자회견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북에 대해 <전세계에 탄도탄 미사일 기술 파는 장사꾼>,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지역평화와 안전에 위험>, <대화를 위한 대화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2월 15일 3국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부시대통령,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햇볕정책은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이다>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파괴, 6 · 15 남북공동선언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미 부시대통령의 한국방문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국제평화 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2. 한반도 평화위협의 당사자는 미국이다.
3. 북미 합의 파기, 북미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다.
4. 미국은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당사자이다.

통일연대는 미국의 전쟁행위, 반통일행위에 대해 분격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미국의 한반도 평화위협, 세계평화위협에 맞서 반전반미반부시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2. 미국이 어떤 장애를 조성한다 하여도 6 · 15남북공동선언을 전민족적인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3. 올해를 우리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는 해로 만들 것이다.
4. 미국이 6 · 15 남북공동선언 실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민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럴수록 더욱 단결된 민족의 힘으로 미국에 맞서 싸울 것이다.

미 상공회의소 투쟁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인권테러행위≫이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2002년 2월 20일

1. 지난 18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며 주한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를 ≪테러사건≫으로 규정,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였다.

2. 이는 미국이 ≪한국≫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최악의 ≪인권테러행위≫이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외쳤던 ≪한반도 전쟁위협 부시방한 반대≫ 구호는 너무도 정당한 외침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화합과 단결의 기운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저해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전쟁을 운운하고 이를 빌미로 무기를 판매하려는 작태 역시 전쟁에 미친 미국이기 때문이다.

3. 만약 이 나라 경찰청이 미국의 요구대로 학생들을 ≪테러범≫으로 규정, 그들의 인적사항을 통보한다면, 이것은 이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임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청의 인적사항 통보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에 응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대사관과 경찰청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분석

최근 여론조사 결과로 본 국민들의 ≪반미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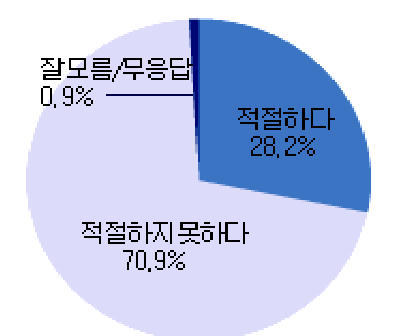
≪≪악의 축≫ 발언 무기구매 압박용≫ 70% ≪북-미 체육경기할 때 이북 응원≫ 80%

연초 부시 미국대통령이 이북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발언을 한 이후 한반도에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50년 동맹국≫을 자랑해온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최근의 반미감정 확산 분위기가 그간 단발적으로 있어왔던 과거의 ≪반미≫와는 그 강도와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최근 ≪한국≫사회에 몰아친 ≪반미≫는 예전에 비해 계층,지역,성별을 떠나 고르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과거 재야 학생운동권에 국한됐던 ≪반미≫ 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최근 몇몇 언론사가 발표한 일련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 뚜렷하게 감지된다.

우선 문화일보가 SBS와 공동으로 지난 2월15-16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관련 응답자 가운데 20.6%가 ≪이북의 변화를 촉구하는 적절한 발언이다≫라고 답한 반면 73.1%가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무려 7명 이상이 부시 미국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문화방송도 2월18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악의 축≫ 발언으로 불거진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 ≪옳다≫



< 부시, '악의 축' 발언 적절한가 >

라고 답한 응답자는 24%에 머무른 반면 ≪옳지 않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무려 67%에 달해 반미감정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을 가늠하게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2월6-7일 양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70.9%(다소 적절치 못했다-41.8%, 전혀 적절하지 못했다-29.1%)였다.

이 같은 반응은 연령층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젊은 층(20대-85%, 30대-81.5%)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공무원(93.1%), 사무전문직(87.4%), 자영업(84.7%), 학생(83.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대미 인식이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한겨레 여론조사팀이 지난 4-5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 민주당 정세분석국의 7일 ARS 조사에서도 56.4%의 응답자들이 ≪악의 축≫ 발언에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부시 방한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도 ≪반미 감정≫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급속히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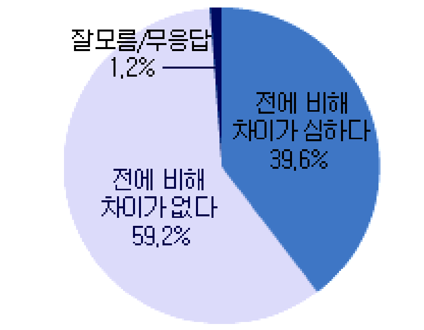
부시발언 부정적 인식 확산

그렇다면 이 같은 ≪반미감정≫의 격화요인은 무엇일까? 우선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악의 축 발언의 ≪불순과 배경≫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다.

문화일보와 SBS가 공동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부시 행정부의 강경발언이 무기구매 압박용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69.8%(매우공감-27.3%, 어느정도 공감-42.5%)에 이르는 등 이후 우리 나라 공군이 추진중인 차세대 전투기사업(FX)에서 미국 전투기를 구매하도록 압박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에 상당수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방송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부시대통령이 대북강경노선을 펴는 이유에 대해서 ≪무기판매 등 미국의 경제이익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는 등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을 표출되어 있음을 드러냈다.

≪악의 축≫ 발언이 자국의 이익에 깊이 천착해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발언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즉 국민들이 느끼는 ≪전쟁체감기온≫의 증대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또 부시의 악의축 발언은 햇볕정책에 따라 긍정적 여론을 자극하고, 나아가 남북문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까지 비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 미국의 대북 강경발언에 따른 전쟁위기감>

또한 ≪부시대통령의 방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7.2%)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7.2%는 ≪대북 햇볕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김대중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대북정책을 비교할 때 각각 지지도는 44.0%: 32.9%로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지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문화일보와 SBS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변함없이 추진≫이 21.2%, ≪일부 수정≫이 47.4%로 응답자의 68.6%가 햇볕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5.4%의 응답자만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지난 12월 19.9%보다 3.1% 포인트가 상승한 23%로 나타난 것도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 민주당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데 대한 공감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론에 대해 36%에 달하는 국민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최근 들어 부시 정부의 ≪악의 축≫ 발언과 관련해서는 ≪부적절 했다≫고 답한 국민이 73.1%에 이른다는 점에서 볼 때 부시의 발언이 대다수 우리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자극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사태와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국민들의 대북관과 대미관의 변화도 감지된다. 과거 미국은 ≪혈맹≫, 이북은 ≪주적≫이라는 과거 냉전론적 이분법이 와해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가능하다.

이상 각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해 볼 때 최근 확산되고 있는 ≪반미감정≫은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전쟁까지 불사르고, 내정간섭을 일삼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경향이 일회성에 그칠지, 또 ≪한국≫의 대미외교정책에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햇볕정책 지지는 말뿐≫

한미 정상회담 각계 반응

20일 김대중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을 누그러뜨리기에는 부족했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종수 ≪한국≫청년연합회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은 ≪급속하게 얼어붙은 한반도의 정세를 풀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전은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부장은 ≪한-미 투자협정, 무기강매 의혹, 대북 강경발언 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자 회담에서는 이를 달래기 위한 일반적인 얘기만 나열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근리 사건 등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 문제에 대한 부시대통령의 사과발언이 한마디도 없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부시대통령이 현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하고 이북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이북 정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국장은 ≪부시가 이북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이북 정권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은 것은 대북 강경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불평등한 소파 개정 국민행동≫ 김판태 사무처장은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하며, 미국은 이에 개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한 뒤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대북 강경정책을 유지하려는 부시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이 이북 인권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테러와의 전쟁 확산에 따른 비판을 무마하고 인도주의적 색채를 덧씌워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계산인 것 같다≫며 ≪부시대통령이 진정 이북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지난 50년 동안 지속돼온 미국의 경제·군사제재를 풀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도 부시대통령의 방한을 둘러싸고 반대 집회와 환영 집회가 사흘째 이어졌다.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전국연합 등 600여개 단체 회원 5천여명은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시 방한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다. 특히 오후 4시40분께 전국농민회총연맹 일부 회원들이 집회 도중 미리 준비해 온 성조기를 불태우려 하자 경찰 300여명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갑자기 집회장으로 뛰어드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져 이현숙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등 10여명이 다쳐 인근 백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박형규·김지길·김상호 목사 등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원로회의(의장 조용술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기수 목사)도 성명을 내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전환 등을 촉구했다.

조성곤 정인환 기자
한겨레신문 2002/02/20

두 개의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 (4)

대표집필자 최성원 /2001년 5월말 발표

1.우리는 왜 이 글을 긴급토론자료로 제출하는가

2.민족민주전선의 세계성과 역사성

3.민족민주전선의 3대 강령과 조직문제

► 4.반제자주역량의 미군 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5.민중적 민주역량의 국가보안법철폐 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6.민족민주전선의 지역통일전선 구축사업

7.민족민주전선과 김대중정권의 관계문제

8.제안 -6.15공동선언 1주년 사업에 총력을 집중하자

4. 반제자주역량의 미군철거투쟁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2

그렇다면 미군을 어떻게 철거할 것인가? 그 철거방도를 크게 나누어보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한 방도는 혁명무력을 동원하여 철거하는 해방전쟁이며, 다른 한 방도는 정치 · 외교력을 동원하여 제거하는 평화협상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중적 투쟁력을 동원하여 철거하는 제3의 방도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대중의 정치투쟁으로 제국주의 무력을 철거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민주전선의 미군 철거 투쟁사를 되돌아보게 된다.

첫째로, 남측이 제국주의 군대의 직접통치 아래에 있었던 1940년대 후반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제국주의 무력을 철거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였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의 미군 철거투쟁은 남측지역에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 속에서 날로 고양되었으며, 심지어 우파 민족주의세력도 외국군대 철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규모 시위투쟁이 각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1946년부터 1950년까지 격동기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이처럼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와 참여 속에서 미군 철거투쟁을 치열하게 전개했으나 그러한 대중의 정치투쟁만으로는 미군을 철거하지 못했다.

둘째로,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베트남 민족의 반제자주역량이 어떻게 미군 철거투쟁을 전개하였는가를 살펴보자.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은 북베트남의 혁명무력과 조직적으로 결합한 남측의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혁명무력이 해방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물론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이끄는 대중의 정치투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지만 그러한 투쟁력만으로는 미군을 철거하지 못했다.

셋째로,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의 미군 철거투쟁을 살펴보자. 1992년 11월 24일은 아시아지역에 배치하였던 가장 커다란 해군기지인 필리핀 수빅만 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한 날이다. 그로써 1898년에 스페인과 미국이 벌인 식민지 쟁탈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뒤로 94년 동안 필리핀에 주둔해왔던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필리핀은 스페인에게 점령된 뒤로 421년만에 처음으로 제국주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미국은 1898년부터 필리핀에 대한 제국주의적 지배와 수탈을 시작하였고 필리핀에 모두 6개의 미군기지를 설치하였다.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은 1969년부터 제국주의와 친미예속정권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계속해왔다. 무장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신인민군(New People's Army)≫의 병력은 1980년대에는 2만5천여 명이었으나 지금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필리핀 민족민주전선은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미군 철거투쟁을 전개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장투쟁도 벌였지만 대중의 정치투쟁으로 미군을 철거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냉전의 해체와 그에 따른 동남아 정세의 변화라는 외적 요인이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그 계승국 러시아는 지난 냉전 시기에 베트남의 캄란만에 주둔시키면서 동남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였던 무력을 철수하였다. 그렇게 되자 미국은 필리핀 주둔 미군무력을 철수하여 괌, 싱가포르, 일본, 남측에 분산하여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옛 소련이 캄란만에 주둔시키고 있었던 무력을 철수하지 않았다면 필리핀에서 미군 철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둘째, 필리핀 정권의 변화라는 내적 요인이 있었다.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필리핀 상원의 철군파였다. 1947년에 체결된 미국-필리핀 군사기지 협정이 1991년 9월 16일에 만료되자 철군파는 미군 주둔이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고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당시 아키노 정권과 부시 정권 사이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새로운 군사기지 협정을 거부하였다. 필리핀 상원의 거부표결로 새로운 군사기지 협정을 체결하는 데 실패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군을 철수하였다. 철군파의 등장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고, 1986년 2월에 이른바 ≪인민의 힘(People's Power)≫에 의한 정권교체를 실현하였던 정치세력의 집권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마르코스 파시스트 정권을 무너뜨린 이 새로운 정치세력은 일반 민주주의적 개혁성을 지니고 있는 우파 민족주의 세력이었다. 1992년에 미군이 철수될 때, 이 새로운 정치세력은 1957년에 필리핀 공산당을 불법화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던 전복활동금지법을 철폐하였으며, 자기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필리핀 민족민주전선과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평화협상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1년 4월 8일 필리핀 민족민주전선 평화협상 대표들이 아로요 정부 관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마닐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해방전쟁으로 미군을 철거한 베트남의 경우는 완전한 철군이었던 반면, 필리핀과 미국의 타협으로 미군을 철수시킨 필리핀의 경우는 불완전한 철군이었다.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군사기지협정, 군사원조협정, 상호방위조약으로 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군사기지협정만 폐기되어 미군이 철수한 것이며 나머지 협정은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미군 군사고문단(JUSMAG)이 지금도 여전히 필리핀의 군사주권을 좌우하고 있다. 필리핀 상원은 1999년 5월에 ≪방문군 협정(VFA)≫을 비준하였으며 그로써 미군은 필리핀 영토에 ≪방문군≫으로 일시 머물면서 필리핀군과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특권도 다시 틀어쥐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민주전선이 이끄는 대중적 정치투쟁만으로는 미군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미군 철거투쟁에서 대중적 투쟁력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하며, 주관주의와 조급성은 피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미군을 철거하는 책임적 주체는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며,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그에 대한 방조역량이다.

아시아의 반제자주화운동사에서 해방전쟁으로 미군을 철거했던 베트남 민족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해방전쟁으로 제국주의 무력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단계는 평화협상을 통해서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제국주의세력과 협상을 벌여서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제국주의세력에게 물러나 주기를 청원하거나 촉구하는 비굴한 행위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반제역량의 주체가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정치 · 외교력을 동원하여 전개하는 치열한 정치투쟁이다. ≪총포성 없는 해방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만일 반제역량의 주체가 제국주의 무력에 맞설 수 있는 막강한 혁명무력으로 안받침을 받지 못하는 허약한 정치 · 외교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국주의세력에 대한 평화협상은 애초에 추진될 수 없으며 정치적 해결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제국주의 무력을 철거하기 위하여 해방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을 상대로 정치협상을 벌일 수도 없다. 미국은 남측 민족민주전선을 상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금 남측 민족민주전선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도는 자주의식으로 각성된 대중의 힘을 조직화하여 제국주의세력을 반대하는 대중적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반제투쟁을 한층 더 고양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대중을 자주의식으로 각성시키느냐 못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성된 대중을 조직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요즈음 어떤 사람들은 부시 정권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을 반대하는 문제를 반미투쟁의 중심과제로 설정하려고 하는 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의 미사

➡

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이 북측을 겨냥하여 추진되고 있다면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은 당연히 반미투쟁의 중심에 배치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은 미국의 군사력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 군사적 지배야망을 달성하려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으며, 그와 더불어 미국의 군수산업자본을 살찌우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이른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막아보겠다는 말은 그러한 목적을 위장하려는 간교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과학기술력이 과연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있으며, 미국이 설령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민족민주전선의 반미투쟁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남측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배의 비법성과 야만성을 대중들에게 폭로하고 그들이 미군 철거투쟁에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미군 범죄문제, 매향리 폭격장을 비롯한 미군기지 문제, 조선전쟁 중에 자행된 양민학살 문제, 미국산 무기 강매 문제, 주둔군 지위협정 문제 등을 줄기차게 제기하는 일상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군이 대중투쟁의 위력에 질린 나머지 주둔기지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른 한 편, 북측의 반제투쟁은 조선로동당이 이끌어가고 있다. 조선로동당이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킨 2천3백만 인민의 조직적 단결력과 조선로동당이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무장시킨 조선인민군의 혁명무력이 북측의 반제투쟁을 전개하는 정치 · 군사력의 실체다. 북측은 그러한 강력한 힘으로 안받침을 받는 국가적 차원의 외교력을 동원하여 제국주의세력인 미국을 결국 정치협상의 자리로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으며, 마침내 미국의 고립 · 압살정책을 제거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조 · 미 공동성명이 주는 정치적 의의는 바로 그것이다. 조 · 미 공동성명은 조 · 미 두 나라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성명이 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자주위업을 완수하는 투쟁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미군을 철거하는 투쟁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 철거투쟁에 관하여 생각할 때,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북측에 비하여 이처럼 투쟁의 제한성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 역량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다. 역량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자기의 단독적인 투쟁력만으로 미군을 철거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미군 철거투쟁에서 자신을 방조역량이 아니라 책임적 주체라고 과대평가한다면 그것은 조선반도 전체의 반제자주역량의 포진구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남측 민족민주전선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주도하고 있는 미군 철거투쟁에서 대중적 정치투쟁이라는 방조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세력을 제거하는 민족자주위업의 수행경로에 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위업이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군을 철거하는 정치과업은 북측의 반제자주역량이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북측에 대한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이 먼저 제거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북측이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을 제거하면 미국은 남측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국주의세력의 지배 · 약탈을 반대 · 배격하는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투쟁이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순차적 과정을 거꾸로 예상하고 있다. 그들은 북측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따라 미국이 남측에 미군을 주둔시킬 명분을 잃어버리면 그러한 유리한 공간을 이용하여 남측 민족민주전선이 대중적 정치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주둔 명분을 잃어버린 불리한 조건에서 대중적 정치투쟁에 밀리게 된 미국이 미군을 철수하게 되어 민족의 자주성이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차적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북측이 제국주의세력의 고립 · 압살책동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미군을 철수하게 되면 남측 민족민주전선의 반제투쟁은 승리적 국면으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 승리적 상승단계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마침내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하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될 것이다.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필리핀의 경우에서 드러난 불완전한 미군 철수의 전철을 밟지 않고 민족의 자주성과 연방제 통일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민족민주전선이 ≪주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까닭은 자주적 민주정부는 민족민주전선의 단독적인 정치역량만으로 수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적 민주정부가 민족민주전선 단독으로가 아니라 남측의 통일전선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통일전선전략과 그 운동력으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통일전선 문제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따로 해설할 것이다.

민족민주전선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사회단체의 지위와 조직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세력화를 실현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세력화는 진보적 대중정당을 건설해야 해결되는 문제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은 민족민주전선의 정치역량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간세력을 결집하여 건설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적 대중정당은 노동계급의 계급정당 또는 노농동맹의 정당이 아니라, 민족민주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중간세력들이 결합하는 통일전선의 정당으로 건설되어야 한다. 민족민주전선은 남측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진보적인 대중정당을 이끌면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계속됩니다)

조국통일3대헌장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2)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놓고 남북조절위원회사업의 진출을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순조롭게 진척되지 못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다.

우리측은 남조선 정권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중단상태에 빠진 남북조절위원회 본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1973년 12월 5일부터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접촉이 시작되었다.

이 접촉에서 우리측은 조절위원회를 당국대표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정당, 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광범히 참가시키는 방향에서 확대개편하거나 조절위원회사업은 조절위원회사업대로 진행하면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따로 소집할 것에 대한 문제 등 남북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시종일관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측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조절위원회사업에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데 대한 우리의 제의까지도 거부하여 나섰다. 여러 차례 진행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접촉에서는 남조선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미제가 월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 쫓겨난 후 불안과 공포에 싸인 남조선정권은 남북공동성명을 더욱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조절위원회 쌍방 부위원장들의 접촉마저 파탄으로 이끌어가려고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 3월 14일 제10차 부위원장 접촉이 있은 다음 쌍방간의 접촉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처럼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말미암아 조절위원회는 공동성명의 이념과 원칙을 실현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파탄되고 말았다.

북과 남의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것을 열어나가려는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은 남북조선적십자단체들의 회담에서도 뚜렷이 표시되었다.

1971년 8월 20일 북과 남의 적십자단체 파견원들의 첫 접촉이 있은 후 5차례의 파견원들의 접촉에 이어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었다. 예비회담에서는 본회담의 장소와 시일 문제, 의정문제, 대표단 구성문제 및 기타 절차상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나 남조선측의 부당한 주장으로 말미암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남조선측이 본회담 날짜를 예비회담이 끝나는 회의에서 토의하자고 고집함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본회담 의정문제 토의에 들어갔다.

우리측의 주동적인 제의와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1972년 6월 16일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 제20차 회의에서는 쌍방 실무자회의에서 합의된 본회담의 의정을 확인하고 그것을 그대로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 의정으로 합의확정하였다.

회의에서 합의된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본회담의 의정은 1,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2,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3,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사이의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4,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문제 5,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이다.